

몸값 이상의 음색...섬세함 ‘굿’

컨슈머블로그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아스텔앤켄 ‘AK70’

70만원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해상도·밸런스 우수...힘은 부족
서브기능 빈약·편의성 아쉬움도

DAP(Digital Audio Player)는 FLA C, WMA, ALAC DSD 같은 고음질 디지털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시장 규모가 엄청나지는 않지만 좋은 음질의 음악을 즐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가치소비’ 지향의 마니아로 이루어진, 꽤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분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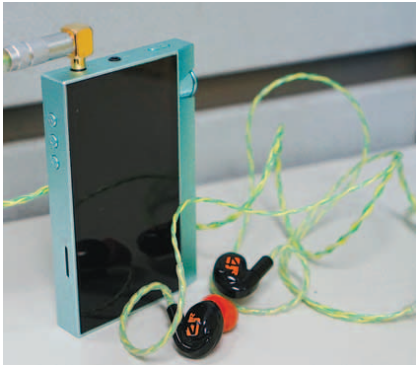
포터블 DAP 부문에서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는 코원과 아스텔앤켄이다.

코원은 귀에 익숙하지만 아스텔앤켄은 조금 낯설다. 과거 코원과 함께 MP3플레이어 시장을 양분했던 아이리버가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아스텔앤켄은 매년 AK시리즈로 새 모델을 내놓는데 AK70은 8월 시장에 나온 막내다.

AK70은 아스텔앤켄의 이전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몸값이다.

베이직 모델이 100만원을 넘어가고 최상위 모델은 420만 원대에 달해 ‘사악한 가격’이란 원성을 듣던 아스텔앤켄의 다른 제품과 달리 AK70은 70만 원대의 착한(?) 가격을 자랑한다.

가격과 함께 마음을 끄는 것은 외양이다.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런 미스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DAP) 중엔 7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를 강조한 아스텔앤켄의 AK70. 이어폰으로 부드러운 저역과 편안한 음색이 특징인 미국 웨스트온(WESTON)사의 W4R을 물리친 의외로 상성이 좋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민트 색상이 참 발랄하다. 가격 경쟁력이 좋은 만큼 외양도 저렴한(?) 느낌을 주는 몇몇 중국산 브랜드나 중후함을 넘어 때론 둔탁한 인상마저 주던 국산 기존 제품과는 다른 느낌이다. 크기도 손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콤팩트하고, 통 알루미늄을 절삭한 바디가 주는 질감도 각별하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가격이 착해도 DAP의 핵심은 사운드다. 두 번째는 조작성이다. 이 점에서 AK70은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 것 같다.

DAP는 사용하는 DAC(Digital Analog Converter)칩과 브랜드 고유의 사운드 튜닝에 따라 음색이 결정된다. 아스텔앤켄은 전통적으로 섬세하면서 잘

정제된 음색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사 코원이 자연스러우면서 저역의 타격감이 있는 소리를 지향하고, 소니의 NW시리즈가 비트 있는 음악에 감정이 있는데 반해 아스텔앤켄은 약간 차갑지만 해상도가 좋은 소리다.

비록 큰 형님뻘인 AK380(428만원)이나 AK320(198만원)의 화려한 음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K70도 소리의 세세한 질감이 제법 살아있다. 해상도와 고,중,저역의 밸런스도 우수해 재즈나 실내악은 물론이고 대편성의 관현악에서도 소리의 결이 선명하다. 배경에 화이트 노이즈 같은 불필요한 소리가 없이 깔끔한 것도 인상적이다. 반면 타격감이 떨어지는 아스텔앤켄의 약점은 많이 보강한 편이지만 여전히 힘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체적으로 소리에서는 몸값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는 만족감을 주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같은 조작성과 편의성에서는 점수가 푹 떨어진다.

일단 몸집이 작다 보니 화면도 작아지는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화면 글자가 너무 작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만큼 민첩한 동작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 박자 늦은 터치스크린 반응속도, 오동작을 방지할 잠금기능(LOCK)의 부재 등 아기자기한 서브기능의 빈약함도 욕에 티다.

특히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이 내장메모리 128기가인데 비해 여전히 64기가를 고집하는 점에서는 아스텔앤켄의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하면 과민한 것일까.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자궁근종 비수술 치료 ‘프로하이푸’ 뜬다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35세 이상 가임기 여성의 40~50% 가량이 경험한다고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궁근종 환자는 2009년 23만 6000여 명에서 2013년 29만3000여 명으로 5년 새 24% 증가했다.

자궁근종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예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도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생리량 변화, 골반통증 등이기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주기적인 검진과 이상 증상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자궁근종 비수술로도 해결가능

예전에는 자궁근종 수술을 위해 근종 절제술이나 복강경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궁손상의 문제점과 임신과 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수술법을 지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하이푸’장비를 이용해 자궁근종을 치료하고



강남베드로병원 하이푸센터 한용보 원장(사진 왼쪽)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1 강남베드로병원 하이푸센터

있다. 완벽한 비침습적 치료법 하이푸(HIFU)시술은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의 머리글자를 딴 치료기술의 명칭이다.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열소자 치료기술을 말한다. 일종의 열 치료법으로 초음파의 초점화를 통해 종양 세포를 태워서 파괴하는 원리다. 특히 종양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 자체를 파괴해 괴사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신체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푸는 환자의 신체와 자궁에 손상을 주는 바늘과 칼을 사용하지 않아서 절개

효과적인 ‘하이푸 시술’ 장점면 극대화
통증 줄이고 치료시간 단축...업계 주목

가 필요 없다. 통증이나 출혈에서도 자유롭다. 방사선의 오염이 없는 고강도의 초음파를 이용해 타 부위에서 종양 조직이 발견되더라도 부담 없이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

●‘프로하이푸’는 하이푸 장점 극대화한 치료

최근에는 5세대 프로하이푸 장비가 주목받는다. 기존의 하이푸 시술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치료다. 프로하이푸는 하이테크 디지털 방식으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줄이고, 치료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5세대 HD LIVE 영상상을 통해 병변의 위치와 통증원인의 정밀 진단이 가능해져 후유증이나 감염경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남베드로병원의 하이푸시술은 3300례 이상의 임상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스파크테크닉과 오븐이펙트를 적용해 주변부까지 쉽고 빠른 치료가 진행된다. 이전에는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던 부위가 없어 효과나 안정성 면에서 만족할 수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하이푸센터 한용보원장

큐레이션 쇼핑몰 G9, 2개 이상 주문때 즉시 할인서비스

프리미엄 큐레이션 쇼핑몰 G9(지구)가 알뜰 소비자들을 위해 9월 30일까지 복수 구매시 구매가의 3%를 즉시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주문시 2개 이상 수량을 선택하면 된다. 추석 선물세트도 복수구매 추가할인이 적용된다. 캐시백 적용 상품이나 기타 할인쿠폰 등이 추가로 붙는 상품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제현장.jpg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오픈 100일 기념 한턱 씁니다!



8월31일 신세계면세점 서울 명동점에서 오픈 100일 이벤트를 알리고 있는 모델들. 신세계면세점은 9월30일까지 케이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업로드하면 매일 내·외국인 각각 선착순 3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 또는 선불카드 5000원을 제공한다.

뉴시스

말하면 척척...SKT, 음성인식 AI 서비스 ‘누구’ 공개

날씨 말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아주 간단한 일상대화도 가능

국내 음성인식 AI시장 첫 도전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가 뜬다. 아마존이 ‘에코’라는 음성인식 스피커를 내놓고, 구글이 ‘구글홈’ 서비스와 기기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장 먼저 출시표를 던진 기업은 SK텔레콤. 이 회사는 8월31일 서울을 지로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성인식 AI 서비스 ‘누구’와 전용 기기를 공개했다. 첫 전용 스마트 기기는 원통형의 가정용 스피커.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www.nugu.co.kr)나 11번가에서 구입 가능하다. 구매 고객들은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0월 말까지 한정 수량을 정상가보다 60% 할인된 9만9000원에 제공한다. 딥 러닝을 접목해 이용이 많을수록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고도화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시 초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KT, 휴대전화 보험상품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KT가 휴대전화 보험상품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휴대전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보험계약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K



SK텔레콤이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와 전용기기를 공개하며 ‘AI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1일 출시하는 첫 전용 스마트기기 가정용 스피커.

사진제공 1 SK텔레콤

해당 기기에 대화하듯 말하면 음악 스트리밍, 가전 제어 등의 스마트홈 서비스, 날씨와 일정 등 정보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선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줘”와 “오늘 날씨는 어때니”, “제습기 켜줘” 등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연을 했다. 또 흐르는 음악의 제목을 답하고 아주 간단한 일상 대화도 나왔다.

클라우드 기반이어서 업그레이드만으로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쇼핑과 음식 주문 등의 커머스, T맵 연계 실시간 빠른 경로 안내 및 간편 지식 검색 등 생활 정보, 뉴스 및 구연

동화 낭독같은 기능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과 로봇 등의 디바이스에도 ‘누구’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API를 공개해 연계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박일환 SK텔레콤 디바이스지원단장은 “누구를 시작으로 ‘AI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경쟁 기업들도 음성인식 AI 서비스와 기기를 잇달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KT의 경우 ‘올레TV’의 음성검색 등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음성검색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관광공사, 두번째 인형관광단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의 20~30대 여성층 개별여행 소비자에 맞춰 고객의 인형을 모아 인형이 여행지를 방문하는 ‘인형관광단’프로모션을 진행한다.6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인형관광단은 9월5일, 2박 3일 일정으로 가이드를 맡은 한국관광공사 캐릭터‘이투군’(イル君)의 인솔 하에 가로수길, 코엑스몰, 롯데월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형관광은 주인공 신청자가 직접 여행을 어렵거나, 여행하기 전 여행지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인형을 투어에 참가시키는 형태다. 여행사 직원이 모집한 인형과 함께 한국을 여행을 하며 SNS로 여행 모습을 일본어와 영어로 실시간 공유한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1차 서울 투어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청자 전원이 실제 한국

여행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대한항공 ‘사랑의 쌀’ 기증행사



대한항공은 8월30일 강서구청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기증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이석우 총무부 담당 상무, 강서구청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은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해 10kg 쌀 300포를 강서구청에 기증했다. 기증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랑의 쌀’후원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이 후원한 규모는 쌀 68톤, 1억9000만원 어치다.

셀류전씨 공식 온라인몰 오픈

메디컬 뷰티 브랜드 셀류전씨는 1일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한다. 셀류전씨는 공식 온라인몰 오픈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회원가입 후 샘플 신청 댓글을 남기는 모든 고객에게 셀류전씨 베스트셀러 샘플 3종을 주고, 첫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한셀류전씨는 메디컬 시술이나 외



조이시티는 중국 앱스토어 및 360, 바이두, 완도우자, 샤오미, 화웨이, UC 등 주요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모바일게임

‘주사위의 신’ 중국 버전을 정식 출시했다. 중국에서 최고의 게임으로 꼽힌 바 있는 ‘클래시 로얄’의 현지 마케팅사 ‘창쓰’와 협력해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와 월드 스타 싸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해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V20’에 구글 검색 기능 ‘인덱스’ 지원

LG전자는 공개 예정인 스마트폰 ‘LG V20’에 구글의 새 검색 기능인 ‘인덱스’를 세계 최초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인덱스는 ‘구글앱’에 신규 추가되는 검색 카테고리. 사용자는 인덱스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콘텐츠를 통합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메일, 주소록, 메시지, 유튜브 등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관련 콘텐츠를 구글앱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김명근 기자

11번가 중고차 부품관 오픈

SK플래닛 11번가는 31일 오픈마켓 최대 규모의 ‘중고 자동차부품관’을 열었다. 국내 자동차는 물론 수입브랜드 자동차 중고 부품까지 2만1000여개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한다. 중고 자동차 부품은 신품보다 60~70% 가량 저렴해 온라인에서 구입해 직접 또는 오프라인 정비센터에서 장착할 경우 차량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편집 1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